新실크로드, 해외조달시장

최근 환율과 고유가 · 내수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해외조달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장규모 외에 최대 장점으로 일단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장기간 물량공급이 보장되고 수출대금 결제가 확실하다는 것.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관세도 면제된다.

여기에 유엔본부 조달시장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연간 10억달러(2006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 등 각국의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유엔 조달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3억 달러에 달하지만 세계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진출 비중이 0.28% 수준에 머물러 있을 만큼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유엔 조달시장은 국적 차별이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우수한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얼마든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주요국가별 해외조달환경과 전망

한-미

한 · 미 FTA를 계기로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우리기업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미시장으로의 진출 통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FTA에서는 미국 본토 내 실적요구를 금지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교역량 세계 12위(2006년)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미 조달시장 참여 규모는 미약한 실정이다.

미 연방정부의 연간 조달규모는 수 천억 달러에 달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규모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이런 미국조달시장에 진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미 연방 조달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미 육군 공군 교역처 (AAFES-Army & Air Force Exchange), 그리고 최근 평택기지 이전사업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계약사령부(CCK-Contracting Command in Korea)등이다.

위에 열거한 미 조달기관과의 계약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안정성이 부여 된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으로의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미 연방조달시장진출을 이 외에도 GSA, AAFES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미 연방정부 기관의 모든 구매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실제로 미 연방조달 온라인 입찰 사이트에서 매일 방대한 양의 입찰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미 정부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됨으로 글로벌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GSA Advantage의 경우 연방정부 구매 관계자들에게 제품정보 획득 및 가격정보 입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연방정부 조달 분류기준 (FSC Code) 에 의한 상위 구매 10개 품목 군

NO	FSC Code	Classification
1	15	AIRCRAFT
2	58	COMMUNICATION
3	23	MOTOR VEHICLE
4	89	SUBSISTENCE
5	91	FUELS, LUBRICANTS, OILS
6	65	MEDICAL, DENTAL
7	99	MICELLANEOUS
8	70	ADP EQUIPMENT, SOFTWARE
9	19	SHIPS, SMALL CRAFT
10	28	ENGINES , TURBINES

한-EU

EU 조달시장 규모는 약 2조 유로(약 3조 달러)이며 미 연방정부(약 3800억 달러)에 비해 8배 이상 큰 규모다.

EU는 각국 정부조달 외에도 IAEA, WHO, UNICEF 등 20개 UN 기구와 EBRD(유럽개발은행), NATO 군납 조달 등 다양한 조달 가능성이 있어 신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EU 조달기관들은 외국기업의 경우 유럽 내 입찰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낙찰건수는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EU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한EU FTA 협상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고 조달 장벽이 해소되면 EU 조달 시장 참가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과 2004년 이후 새로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할 때 FTA 출범으로 시장 접근이 개선될 경우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EU의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제품 생산자가 회수와 재생까지 책임지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이나 화학물질의 정보등록을 의무화한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그리고 까다로운 통합규격인증마크(CE) 등은 모두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한·EU FTA를 조기에 성사시키면 서유럽시장에 먼저 접근하는 효과 외에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동유럽시장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선점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EU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EU국가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EU에 대한 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도 서유럽 중심의 선진국 연합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비 특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

1995년 시작된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04년 2135억 7000만 위안으로 당해 연도 재정지출의 8%를 차지했으며 전체 GDP의 2%를 차지했다. 이것은 6년여 동안 평균 88.8% 성장한 치수다.

정부 조달 구매 항목은 2004년 중국 정부의 구매 항목은 물품 관련 1048.7억 위안, 공정 관련 948.3억 위안, 서비스 관련 138.4억 위안이었고 조달 방식은 공개입찰 59.5%, 요청입찰 11%, 경쟁성 담판 10.6%, 가격 문의 13.2%, 단일창구 구매방식이 5.7%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 수입제품과 합자회사의 제품이 고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에서는 분명히 정부 구매는 중국산의 제품과 공정(工程)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명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 브랜드의 엘리베이터, 승용차 등은 정부 조달 품목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서 중저가 제품시장은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중국 정부 구매의 상당 부분이 대형 프로젝트 및 고가제품, 선진기술 제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많은 조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진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가격에서 유럽, 미국 제품과 대비해 일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이 정부나 자체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입찰에 필요한 제품의 개발, 포장, 디자인 및 가격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부 제품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은 제거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시 영향력과 실력 있는 협력 파트너를 발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낙찰 후에 사후 서비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중앙 및 각 성시省市와 일부 현縣급까지도 입찰응찰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돼 수시로 입찰을 공고하고 응찰 후 결과 공개, 업체 소개와 홍보 기능까지 실시하고 있다. 전문 응찰 관련 회사가 이 사업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주요 입찰 관련 홈페이지로는 中國政府采購網 www.ccgp.gov.cn와 中國招標投標網 www.cec.gov.cn가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정부지원 정책

- **지식경제부** _ 시장 조사단 파견, 우기업들의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중국 내륙에서 동부연안을 대체할 '10대 투자지역'을 선정, 10대 지역별 산업인프라와 투자유치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노동부** _ 한국에서 귀국하는 중국 근로자의 중국 진출기업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한중 양국을 이해하는 중간관리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중기청** _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
- **KOTRA** _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www.ois.go.kr)'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복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대한상의** _ 재중국 43개 지역상회와 함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

〉〉해외조달시장 진출성공 사례

와우테크

기술력에 대해 입소문이 펴지면서 최근 미국의 공공 부문 조달사업자로 워싱턴 현지업체인 달리컴퓨터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 펜형 마우스 '와우펜'을 공급하고 있다. 이 계약으로 미국 주정부와 의회, 그리고 학교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달리컴퓨터를 통해 미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미국시장 진출 초기 우수한 기술력으로만 승부하려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중 현지인 마케팅 고문의 경영자문을 바탕으로 시장공략 전략을 바꾼 것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

유니더스

콘돔과 수술용 장갑 등을 10여 년 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국제가족계획연맹(IPPF)등 유엔 산하기구에 공급하고 있다. 2006년 국제기구 납품실적만 약 320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외국 업체 진입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정부와 3년간 9억 개 피임기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니더스는 해외조달시장진출에 있어 "품질이 우선이지만 납품과정에서 제품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캬라반

2003년 6월 유엔본부가 실시한 평화유지군 숙소용 텐트 입찰경쟁에서 미국과 캐나다 · 스웨덴 등 13개국 14개 해외 유수 기업들을 물리치고 공식공급업체로 선정, 230만 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했다. 뿐만 아니라 납품제품 품질에 만족한 유엔본부가 곧바로 470만 달러의 추가 구매계약을 의뢰, 지난해까지 총 700만 달러의 납품물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회사가 일약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관련사이트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
▶FTA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 관세청 FTA 비즈니스 모델 fta.customs.go.kr
  – 무역협회 뉴비즈니스 모델 kita.net
▶기업들이 FTA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FTA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FTA국내대책위원회 FTA활용정보 포털 fta.korea.kr
  – 산업자원부 FTA 기업지원 포털 mocie.go.kr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ww.kiep.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참고자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fta.korea.kr
『파이팅! FTA코리아』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LG경제연구원 07.5.21
■『해외 조달시장에서 성공하는 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28개국 34개 정부조달기관 진출 성공 사례
■코트라 KOTRA 칭다오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야기』(주)컴아트시스템 외 16개사 저

》국가별 유망 조달분야

●미 국●

■ 뉴욕/뉴저지주

*뉴욕은 맨하탄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섬유 · 패션산업, 광고 · 출판업, IT업종 위주의 거대한 구매 클러스트가 형성되어 있음

*뉴저지는 북미 제약 ·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세계유수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존재

– 뉴저지 주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이며, 미동부시장을 겨냥한 플라스틱, 전기기구, 의약 · 의료기기, 광섬유 및 레이저 산업도 유망

■ 워싱턴

*가정용 및 사무용 IT 기술 관련 제품

– 소형 가전제품, 사무기기용 제품, 보안 관련 제품, 군수제품, 의료장비

*생활필수품 – 신기술 제품, 일반 가정용품, 팬시제품, 가공식품, 건강용품

■ 시카고

*기계 및 자동차 부품, 통신 및 컴퓨터 주변기기, 건설 중장비 부품, 금형제품, 전기관련 제품, 잡화제품, 의료 관련 제품 등의 수출 가능성이 높음

●중 국●

■ 광동성

*전자정보통신부품

– 컴퓨터 통신설비, A/V 등 관련 부품, 직접회로, 광전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자동차전장부품, 가전 및 A/V기기, 전자완구 관련 부품

– 석유화학 및 고급소비재 : 석유화학 원재료, 건축 및 실내장식재, 귀금속, 자동차 등

*도매시장 – 의류, 신발, 가방, 악세사리, 화장품, 완구, 시계 등과 부재료

■ 상하이

*상하이는 중국내 4대 중심(경제, 무역, 금융, 물류)역할수행이란 목표를 두고 경제중심발전전략의 일환으로 6대 지주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

*6대 지주산업

– 전자정보 :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으로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 수요가 큼

– 철강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석유화학

– 플랜트 : 기중 운송설비, 통용측정기기, 전자전기 공학기계 전용설비, 선박, 발전기

– 생물의약

■ 베이징

*하이테크 전자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자동차 및 부품

*서비스업

– 요식, 유통, 물류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성장세가 매우 높은 추세임

●브 라 질●

*IT – 중남미 최대 IT시장 휴대폰(8천만대 이상 보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인터넷솔루션, 디지털카메라

*부품류 –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 자동차, 보안장비 부품 등

*기계류 – 고기술 기계분야, 지게차, 건설중장비, 플라스틱 사출기 등

*보안장비 – 치안불안으로 보안장비(기업 및 가정용)에 대한 수요 급증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

*의료기기 – 의료장비 기술 발달이 저조해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의존하고 있음

*서비스업 – 고객중심의 서비스업 미발달

*저가제품 –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여 서민들은 저가품 선호

●싱가포르●

*반도체장비 · 전자부품 – 싱가포르에는 세계적 반도체회사의 제조공장 및 R&D 센터 소재

*통신장비(RFID관련 장비 및 부품) – RFID 분야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

*생명공학 제품 – 아시아 최고의 생명공학 연구단지인 바이오폴리스를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제약, 생명공학 기업이 활동 중

*건축자재(보안장비, 엘리베이터부품), 수처리설비, 정밀기계부품, 한류를 활용한 제품 등

●독 일●

*가전제품, 내비게이터, 위성방송용 수신기, 통신장비용 부품, 핸드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모니터, IT 관련제품,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의료장비, 잡화 등

●러 시 아●

*IT,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및 장비, 각종 소비재 및 식품류(통조림, 가공식품, 제빵류 등), 보일러, 화장품, 시계, 의류, 문구류, 포장재 등

●일 본●

*IT 관련 및 정보통신업

– IT전화 관련분야, 원세그(1 segment)대응 콘텐츠 등 차세대 휴대전화 서비스, 웹비즈니스 등 IT 관련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우수성을 인정

*복지 및 실버산업

– 단카이세대의 노령화와 출산율저하로 2030년 경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복지 및 실버산업이 유망

*힐링Healing 및 안전산업

– 'Healing'은 소비트랜드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상품 외에 식품, 재해, 육아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함

●인 도●

*통신장비 – 최근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통신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가전부품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의 수요가 연간 20%이상 급증

*섬유기계 – 섬유수출에 대한 쿼터가 폐지되면서 인도가 중국과 함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의 섬유업체들이 설비 확장에 적극적임

*컴퓨터와 주변기기, IT, 제약, 의료장비, 엔지니어링 등

●두 바 이●

*건축자재, 플라스틱 가공기계, 포장기기, 위성방송용 수신기, 전기전자제품, 보안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및 중소형 플랜트, 섬유 등

●베 트 남●

*기계설비류, 중고차(상용차)

*중장비 및 건축자재 등 건축 수요

– 건설 중장비 및 건축자재는 베트남 건설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관련 품목으로 파쇄기, 건설 중장비, 건설기자재가 있음

*섬유기계, 변압기, 발전기, 자동차용 부품 등